

교수업적 평가와 대학의 이념

유 한 구 /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교수

교육, 연구, 봉사를 '더하기' 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교육, 연구, 봉사를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별개의 활동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수들로 하여금 대학 바깥의 직접적인 요구에 부응하도록 종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교수업적평가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이다. 반면에 교육, 연구, 봉사를 '곱하기' 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교육, 연구, 봉사를 유구한 대학의 전통 속에서 교수가 마땅히 해왔고 또 해야만 하는 한 가지 동일한 활동의 서로 다른 세 가지 측면으로 파악하는 것이며, 이것은 교수들로 하여금 대학 안의 요구에 충실히 전념하는 데에 격려와 지원이 되는 정신적 지주를 제공해 준다.

1. 문제의 제기

교수업적평가 제도는 이제 거의 정착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1994년 대학 종합평가 인정제 시행에 발 맞추어 몇몇 대학에서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이 제도는 오늘날 부분적으로 실시하는 곳까지 포함하여 거의 모든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이 제도가 급격히 확산된 것은 무엇보다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정부의 대학교육 개혁 정책에 힘입은 바 크지만, 그것에 못지 않게 대학 자체가 그 제도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

기도 하다. 대학은 수월성과 경쟁력의 제고를 표방하는 대학교육 개혁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학 스스로도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교수업적평가와 같은 개혁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¹⁾

이러한 상황에서 교수업적평가 제도는 기정 사실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당연한 결과로 그것에 대한 논의 역시 그것의 성격이나 정당성 문제보다는 평가 항목과 기준의 타당도와 신뢰도 문제, 평가자의 자격 문제, 평가 결과의 활용 문제 등 교수업적평가 시행상의 문제점 해결에 집중되어 있다.²⁾ 그러나 그러한 시행상

의 문제들은 대부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필요로 하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예능계 교수업적평가와 관련하여 ‘연구 위주로는 천재 예술가를 수용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³⁾ 즉, 교육, 연구, 봉사의 세 영역에서 모두 업적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교수업적평가는 ‘천재 예술가를 질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지적은 비록 예능계 교수의 경우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교수업적을 교육, 연구, 봉사의 세 요소로 구분하는 데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주목을 끈다. 사실상 이 의문은 예능계를 비롯한 거의 모든 계열의 교수들에게 의하여 교수업적평가 시행 초기부터 제기되어 온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교수업적평가의 근본적 문제로 부각되지 않은 것은 물론, ‘각주 2’에서 언급한 여러 대학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문제를 교육, 연구, 봉사 사이의 상대적 비중과 각각에서의 평가 척도를 전공 계열 또는 학과에 따라 달리하는 문제로 취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오직 교수업적평가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극복해야 할 장애 요소로 취급되어도 좋은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교수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짐작컨대 업적평가에서 평가 대상으로 삼는 교육, 연구, 봉사가 교수들에게 대학 교수로서의 본분에 더욱 충실하고자 할 때,

기준으로 삼을 만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지금까지 수행해 온 역할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또는 하지 않아도 되는 과외의 임무를 교수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말하자면 교수업적평가에서 재고자하는 교수업적을 성취하는 일이 지금까지 교수들이 생각했던 교수의 임무와 동일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물론 교수업적평가를 지지하는 쪽에서 보면 이와 같은 교수들의 생각은 구태의연한 상아탑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며, 따라서 그것을 지양하기 위해서라도 업적평가가 필요하다는 식의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교수들의 생각 또한 대학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에 대한 한 가지 견해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당하게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업적평가를 지지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그들의 주장은 대학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학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앞에서와 같은 의문을 정당하게 존중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제거되어야 할 장애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장애를 내포하고 있는 교수업적평가를 세밀히 분석하여 그것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학 구성원들이 대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행동 방식을 요약하여 ‘대학이념’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교수업적평가

1) 김수일, “교수업적평가제의 확립: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의 선택,” 『대학교육』, '94/9·10(71호), 38~42쪽 참조.
 2) 『대학교육』('96/7·8, 82호)의 ‘특별기획: 교수업적평가제’ 참조. 여기에서 교수업적평가제의 발전 방안으로 연세대는 ‘원칙에 충실한 합리적 운영 노력’을, 이화여대는 ‘객관적 평가 기준 적용을 위한 모색’을, 홍익대는 ‘영역별·계열별 공정평가를 위한 과제’를 내세우고 있다.
 3) 이상일, “예능계 교수업적평가: 연구 위주로는 천재 예술가를 수용 못한다,” 『대학교육』('96/7·8, 82호), 66~74쪽.

의 기준과 척도, 시행 방법 등은 명백히 대학 이념의 표현이다.

그것들은 대학 구성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교수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장 분명한 용어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수들은 부지불식간에 이미 그 구속 아래 놓여 있다. 또한 그것은 오늘날 국가와 사회가 대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관심의 집약체로 볼 수 있으며, 이 점에서 그것은 대학의 이념에 관한 사회적 통념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의 사실은 교수업적평가제의 실체를 파악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시사한다. 즉, 그 실체는 그것에 가정되어 있는 대학 이념을 드러내지 않고는 파악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하이 글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교육, 연구, 봉사를 교수의 임무 또는 역할을 나타내는 서로 다른 요소로 받아들이고 그 관련 방식을 교수업적평가가 취하고 있는 관점과 그것에 대한 관점을 대비시켜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논의 결과는 새로운 관점에서 대학의 이념을 돌아보게 할 것이다.

2. 교육 · 연구 · 봉사의 관계

각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수업적평가는 대부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내놓은 안을 모델⁴⁾로 하고 있다. 그것에 의하면 평가 대상이 되는 교수의 업적은 교육, 연구, 봉사의 세 영역으로 구분되며, 각각은 다시 수많은 하위 항목으로 세분되어 있다. 그리고 그 항목들 하나 하나에 대한 평가 내용과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그 평가 결과

는 각각에 부여된 가중치에 따라 점수화한 다음 합산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하여 산출된 교수의 업적 점수는 교수 사이의 상대적 위치를 말해 주는 것으로 해석되며, 승진이나 연구비 지급 등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여기에서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평가 항목의 선정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대교협의 연구에 의하면, 평가 항목들은 “교수의 업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업적평가의 영역별로 교수의 모든 업적이 빠짐없이 들어가도록 가능한 모든 항목을 열거한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항목 선정이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평가 항목들은 당연히 선행 연구나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등 심사숙고를 거쳐 결정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신중하게 결정되었다고 그것들은 교수업적에 대한 사람들의 상식적 견해에 의존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토록 수많은 항목을 나열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교수업적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평가 항목 선정에서는 종합성 또는 포괄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빠진 것이 없는가 하는 데에 항상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수업적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나열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것과는 별도로, 그러한 시도는 교수업적에 대한 특이한 사고 방식 또는 접근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수업적이 우선 교육, 연구, 봉사로 구분되고 각각이

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수의 업적평가를 위한 제도개발 연구』, 1994. 11.

다시 수많은 하위 항목들로 세분될 수 있다는 생각은, 반대편에서 보면, 교수업적은 교육과 연구 및 봉사의 합으로, 그리고 이들 각각은 다시 그 하위 항목들의 합으로 정의될 수 있다는 생각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교수업적이 교육과 연구와 봉사의 합으로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은 곧 이들 세 가지가 각각 별개의 것이며, 따라서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성취되는 것임을 뜻한다. 이 견해의 포인트는 비교적 명백하다. 요컨대, 교수는 가르치는 일만 해서는 안 되며 그 외에 연구도 해야 하고 봉사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교수에게는 다양한 임무가 주어져 있으며 이 임무들은 이 임무에 저 임무를 덧붙이는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교수업적평가에서의 교육, 연구, 봉사는 '더하기'의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더하기의 관계는 경우에 따라 특정 항목을 덧붙이거나 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에, 그에 못지 않은 심각한 난점을 가진다. 즉, 교수업적평가는 교수의 임무가 얼마나 다양한가는 말하면서도 그 다양한 임무 사이의 관계나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말해 주지 못한다. 교육, 연구, 봉사 사이의 관계를 더하기의 관계로 보는 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세 영역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뿐이다. 물론, 각 영역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하위 항목 하나 하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야만 한다. 예컨대, 교육 영역의 경우를 보면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하여 수업계획서는 반드시 작성 배부해야 하고, 새로운 교과목과 교재도 개발해야 하며, 시청각 기자재 사용은 물론 학생들의 강의평가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교

수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 하나가 모두 교수에게 과제로 부과되어 있다. 즉, 교수들은 평가 항목 하나 하나를 해결해야 할 과제로 삼아 자신의 업적을 축적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 대하여 모든 교수가 세 영역 모두에서 탁월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식의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즉, 사람들은 '교육에 전념하는 교수도 있고, 연구 활동에 탁월한 교수도 있으며, 행정가로서의 역량을 갖춘 교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말 역시 연구와 봉사가 교육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별개의 것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점에서 교수업적평가제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개의 경우, 이 문제는 영역별 배점에서 비중을 조정하거나 특출한 업적에 대하여 부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세 영역 사이의 관계를 더하기의 관계로 파악하는 관점의 난점은, 그러한 관점이 사회적 통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더 잘 파악될 수 있다. 대학 바깥에서 보면 대학은 국가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기도 하고, 국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첨단 이론과 기술을 연구하는 곳이기도 하며, 또한 대학 교수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 능력은 대학 바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적극 활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때 대학은 이러한 대학 바깥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할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업적평가에서의 그 수많은 평가 항목들은 대학 바깥의, 즉 사회의 다양한 기대와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는 사실상 누구에 의하여 대변되는냐에 따라 그리고 당시의 시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강도나 강조점이 달라지며, 새로운 요구가 있을 때마다 대학은 그것을 기존의 것에 추가하여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오늘날 대학에 대한 사회의 요구는, 최근의 대학의 형편을 살펴 보면 금방 알 수 있듯이, 보다 직접적인 형태를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강도 역시 예전과는 다르다.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은 사회에서 통용되는 논리(예컨대, 경쟁의 원리, 소비자 중심의 원리 등)를 그대로 받아들여 교수업적평가제를 시행하는 등 대학 운영의 주된 원리로 삼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교수업적평가에서 말하는 교육, 연구, 봉사는 분명히 지금까지 대학 교수들이 해 온 일 이외의 다른 것일 수 없다. 교수업적평가가 실시되기 이전에도 교수들은 분명히 교육과 연구에 몰두했으며, 나름대로 봉사 활동을 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경우의 교육, 연구, 봉사는 업적평가에서와는 달리 별개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여기에 비하여 교수업적평가에서 그것들을 별개의 활동으로 보는 것은 그것들을 별개의 평가 대상으로 삼는 데에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업적평가에서는 교육, 연구, 봉사는 별개의 교수업적으로 평가되며, 따라서 교수는 이들 세 가지 서로 다른 업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세 가지 서로 다른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평가의 필요에서 벗어나서 생각해 보면 사태는 전혀 다르게 파악될 수 있다. 예컨대, 교실에서 강의하는 일과 연구실에서 논문을 쓰는 일은 그 일을 하는 장소가 다르다고 하여 별개의 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될 것이

다. 그 논문의 내용이 강의실에서의 강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며, 교육에 전념하는 것 그 이상의 봉사는 있을 수 없다는 주장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교육, 연구, 봉사 사이의 관계는 결코 더하기로 표현될 수 없다. 말하자면 교수가 하는 일은 교육, 연구, 봉사의 세 측면으로 나누어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여 이들을 별도의 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별개의 활동으로 보아도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교수가 하는 일은 하나이며, 이 하나의 일을 교육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연구와 봉사는 교육과 별도로 존재하는 별개의 활동이 아니라 교육과 결합되어 있는, 교육의 다른 측면을 나타낸다. 이 점에서 교수 개개인은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교육, 연구, 봉사의 임무를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파악되는 교육, 연구, 봉사의 관계는 더하기가 아닌 '곱하기'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세 가지가 곱하기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더하기의 관계에서와는 달리 하나가 다른 나머지 것들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관계에 있음을 뜻한다. 즉, 이들 셋은 사실상 하나이며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셋이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의 대학교수의 활동, 그것은 어떻게 기술될 수 있는가? 그것은 지금까지 대학에서 교수에 의하여 이루어져 온 대학교수로서의 활동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 '대학교육의 실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더하기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을 가르치는 것과 함께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가 관심의 초점이 되지만, 곱하기의 관점에서 보면 이 '대학교육

의 실제'가 관심의 초점이 된다. 대학교육의 실제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에는 교육과 연구와 봉사가 미묘한 균형을 이루며 공존하고 있는지도 모르며, 이들 셋 중 어느 것으로도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면서도 대학에서 특별히 중요시하지 않으면 안 될 무엇인가가 들어 있는지도 모른다. 교육과 연구와 봉사의 관계를 더하기의 관계로 파악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을 따르는 것이라면, 곱하기의 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대학 자체의 전통 또는 이념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 대학의 이념

이상에서 살펴본 교육, 연구, 봉사의 관계를 파악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점은 각각에 상응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대학 이념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먼저 교수업적평가는 오늘날 통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대학 이념이 무엇인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교수업적평가가 시사하는 바에 의하면, 교육과 연구와 봉사는 교수가 수행해야 할 별개의 활동이다. 이 세 활동은 각각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그 수월성이 추구되어야 하며, 한 활동에서의 수월성이 다른 활동에서의 수월성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교육은 학생이 필요로 하는 또는 유용성이 높은 최첨단의 정보를 가능한 많이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일이고, 연구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사회의 요구에 부합되는 기술을 개발하는 일이며, 봉사는 교수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발휘하여 정부나 공공단체, 기업 등에서 자문을 하거나 전문

학술단체에서 활동하는 것 등을 가리킨다. 교육, 연구, 봉사가 이런 것이라면 그것들은 반드시 대학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오늘날 전통적인 의미의 대학은 더 이상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최첨단 멀티미디어가 새로운 교육 매체로서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교수의 교육활동은 이것과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또한 대학 교수는 연구에서 대학 바깥의 전문 연구기관과 경쟁해야 하며, 사회봉사를 통하여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교수업적평가는 오늘날 교수가 당면하고 있는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한 한 가지 대응 전략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대학 교수가 대학 바깥에서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교육과 연구와 봉사에 높은 수월성을 보여주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응전략은, 그것이 아무리 절실한 필요에서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대학 바깥의 요구에 맞추어 대학에서 해야 할 일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난점을 가진다. 다시 말하여 그것은 대학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구분하지 않으며, 이 점에서 그것은 대학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여기에 대하여 대학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이처럼 강한 상황에서 대학의 존재 이유 같은 것을 새삼스럽게 문제삼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 의문은 대학이 사회를 위하여 무엇인가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대학의 존재 이유가 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이 사회에 대하여 가지는

기능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학은 학생들에게는 직업소개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기업체에게는 유능한 인력의 공급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며, 대학에 있는 고급두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쪽에서 보면 대학은 사회봉사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뿐만 아니라 대학은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이 외에도 대학의 기능은 얼마든지 더 열거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의 기능을 아무리 많이 열거하더라도 그것이 곧 대학의 존재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여기에서 대학의 기능이라는 것은 대학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대학에 대하여 가지는 기대 이상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보다 중요한 문제는 대학이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다양한 기능 중에서 대학은 어느 것을 더 중요시해야 하느냐이다. 대학의 본질적 기능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면, 대학은 당연히 그것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본질적 기능은 대학의 기능을 모두 열거하고 그것들을 본질적 기능과 비본질적 기능으로 분류하는 식으로는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학에서 교수가 하는 일은 교육, 연구, 봉사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에 누구나 동의하는 것으로 보아 이 세 가지는 대학의 본질적 기능임에 틀림없다. 이것들이 과연 본질적 기능인가 하는 데에 우리가 잠깐이나마 의구심을 가졌던 것은 이것들이 무엇인가를 자신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정해 달라는 사회의 요구에 현혹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사회는 너무 오랜 일이라 대학을 처음 세웠을 때 걸었던 자신의 기대를 까마득히 잊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회가 대학에 걸었던 그 기대가 무엇인가를 짐작해 보기 위해서는, 대학이라는 제도는 결코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지만, 최초로 대학을 세운 어떤 위대한 인물을 상징하고 그 위대한 인물이 자신이 세운 대학에 걸었던 기대가 무엇이었는가를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 모르긴 해도 그 위대한 인물은 결코 사람들의 변덕과 탐욕에서 비롯된 그 수많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학을 세우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대학을 세운 진정한 목적은 탐욕으로 물든 세계 이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데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이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학은 사회로부터, 즉 사람들의 변덕과 탐욕으로부터 보호되지 않으면 안 되며, 이 보호장치 중의 하나가 대학의 자율성이 아닌가 생각된다. 대학의 이 이념은 오늘이라고 하여 완전히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는 그동안 대학이 누린 자유에 힘입어, 비록 상당히 약화된 형태로나마 현재의 대학교육 실체에 구현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점에서 교육, 연구, 봉사의 관계를 곱하기의 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그것은 교육이 다른 두 가지와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것들이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것들이 바로 대학의 이념을 간직하고 있는 대학교육 실체의 구성요소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여 이들 세 요소의 관계를 곱하기로 파악하는 것은 이들 세 요소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는 대학교육의 실체와 관련하여 파악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것은 다시 사회의 요구가 아닌 대학교육의 실체에 가정

되어 있는 대학의 이념에 충실한 방식으로 교육과 연구와 봉사라는 활동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학을 지칭하는 '진리탐구의 전당'이라든가 '학문의 보금자리'라는 말은, 오늘날 거의 그렇듯이, 전성으로 갖다붙이는 구두선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러한 사태는 대학을 위해서만 아니라 대학이 속하고 있는 사회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대학이 학문의 보금자리라고 하는 것은 대학에서는 다양한 학문의 추구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고유의 특별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대학에서의 학문 추구는 그것이 가지는 유용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이 아닌, 학문 그 자체의 성격에 충실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대학이라는 장소는 서로 다른 학문을 추구하는 학자들로 하여금 언제라도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해주며, 자신이 추구하는 학문이 가지는 독특한 목소리로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대화는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학문 추구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느끼게 해준다. 대학 교수는 학문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보면 학자이고, 학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교사이다. 그러나 '가르친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배움을 연시하는 것'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자로서 학문을 추구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은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그 두 가지 일이 모두 '학문의 보금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그것들 사이의 관련은 비교적 명백해진다. 교수가 하는 공부이건 학생이 하는 공부이건 간에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공부는 학문 추구의 정신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 정신은 대학에서의 대화에 참여한

결과이면서 동시에 대화에의 참여를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 학생이, 장차 무슨 직업을 가지느냐와 무관하게, 대학에 머무는 동안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학문 추구의 정신이다.

4. 결 론

교육, 연구, 봉사를 '더하기' 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교육, 연구, 봉사를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별개의 활동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수들로 하여금 대학 바깥의 직접적인 요구에 부응하도록 종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교수업적평가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이다. 반면에 교육, 연구, 봉사를 '곱하기' 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교육, 연구, 봉사를 유구한 대학의 전통 속에서 교수가 마땅히 해왔고 또 해야만 하는 한 가지 동일한 활동의 서로 다른 세 가지 측면으로 파악하는 것이며, 이것은 교수들로 하여금 대학 안의 요구에 충실히 전념하는 데에 격려와 지원이 되는 정신적 지주를 제공해 준다.

대학은 직접적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회의 요구로부터 벗어나 그것에 부여된 고유의 활동을 영위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회에 봉사한다. 사회가 대학에 맡긴 고유한 활동은 학문 추구의 활동이며, 이 학문 추구 활동은 유용성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운 대학이라는 특별한 장소를 필요로 한다.

지금까지 대학은 학문 추구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학문의 보금자리로 존재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결코 포기될 수

없는 대학의 본질이다. 오늘날의 대학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대학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대학은 사회 속에 존재하는 한 사회의 요구를 외면할 수는 없다. 교수업적평가 제도가 대두된 것은 바로 그 사회의 요구와 관련하여 이해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교수업적평가가 전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지나친 주장일지 모른다. 그러나 교수업적평가가 과연 사회의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은 반드시 제기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수업적평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학문 추구 활동을 위촉시킨다는 결정적인 난점을 가지고 있다. 그 난점은 교육, 연구, 봉사를 더하기 식으로 규정하는 데에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이며, 그런 식의 규정은 평가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따라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혹시라도 이 글의 논의가 교수업적평가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이 글의 의도가 아니다. 사실상 교수업적평가 제도는 이미 정착단계에 있으며, 그리하여 그것의 원상회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것이 가지는 명백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교수업적을 평가하겠다는 말이 나온 것을 보면 틀림없이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대학의 무기력함과 교수의 무사안일함은 사회의 질책이 아니더라도 대학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기가 되어 교수업적을 평가하겠다는 발상이 대두된 것은 분명히 불행한 사태이다. 교수업적평가 제도는 평가 그 자체가 가지는 특성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 불행한 사태에 직면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은 교수업적평가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수업적평가의 위험을 철저히 인식하는 일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라는 항간의 속담은 이 경우에 적절한 경구가 될지 모르겠다. ■

유한구/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교육대학 초등교육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한국초등교육학회 회장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 『교육인식론서설』, 『서양교육사』(공역) 등이 있으며, "호의 의미: 한 교육학적 해석", "인성교육의 한국적 전통"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